

## 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## 중국 여행자보험, 보험료 현실화 시급

□ 중국 여행자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금이 과거 10년 전 정부가 책정했던 금액 그대로 현존하고 있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- 1989년 첫 등장한 중국 여행자보험은 9년 후인 1998년에 단일보험료로 정착, 정부에 의해 보험료 20위안-보장보험금 40만위안으로 책정되었음.
- 이후 2007년 9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여행자보험 상품개발권과 가격결정권을 보험회사 자율에 맡겨 가격경쟁을 유도하였지만, 현재에도 10년 전 정부가 '여행자보험 업계 지도규정'에 의거해 정한 보험료와 보험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.
- 업계에서는 여행자보험 계약서가 보험중개사에 평균 5~6위안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약 10위안 이상을 소비자들이 더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.

□ 이러한 여행자보험의 불합리한 보험료는 원가비용이 높아서가 아닌 항공티켓 판매상들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감독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함.

- 실재로 다수의 항공티켓 판매점들은 특가 항공티켓을 판매하면서 특정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을 강제하고 있는데, 이는 항공티켓 판매로는 수익을 올리기 힘든 판매상들이 대신 한 건당 약 15위안의 차익이 남는 여행자보험 판매로 수월하게 수입을 올리려는 상술에 기인함.
-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행자보험 보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상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, 현재 40만원위안으로 설정된 보장보험금 역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유사시 여행자보험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.

(신쾌보 4/2)